

전주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탄력'

팔복동 일반공업지역,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동활용시설 구축·공동혁신 활동 지원

전주시는 팔복동의 일반공업지역이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재공고에 참여했고, 서류심사·발표평가·현장심사 및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됐다.

앞으로 이곳은 폐수처리시스템·공동물류시설·편의시설 등 공동활용시설 구축뿐 아니라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한 공동혁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뿌리기업 중심의 (가칭)다목적 전주정밀가공특화단지협회를 설립하고, 공동작업 및 공동연구개발 추진에 힘을 예정이다. 지난 2020년 공모사업 선정돼 팔복동 내 구축 중인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화 반시설과 연계해 공동 사업화 제품개발 등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면적 약 9만4418㎡ 중 뿌리기업 면적 약 2만1181㎡ 규모이다. 총 2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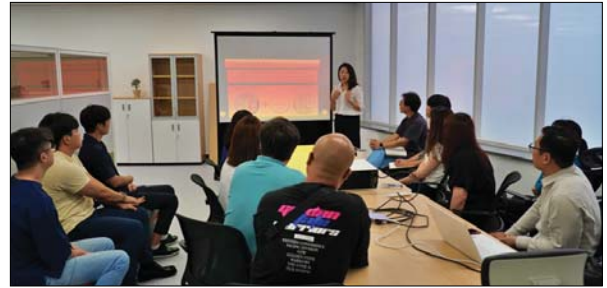
기업 중 뿌리 기업이 14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14개사 중 정밀가공 기업은 9개사(64% 차지)로, 정밀가공 중심으로 금형과 용접, 표면처리 등 다양한 분야의 뿌리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인근에 다수의 국가 연구시설이 위치해 교육 훈련 및 인적 자원 확보에 유리하고, 화물 운송 등 기업 활동 영위 위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강점을 지녔다.

삼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선정으로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해 전주 뿌리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주력산업과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뿌리산업은 도내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기계 등)에 있어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반산업으로, 주요 금형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의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을 말한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찾아가는 인권 교육.

인권이 존중되는 공단 만들기 '최선'

전주시설공단, 인권 보호 위해 찾아가는 인권 교육 진행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공단은 24일 혁신도시의 라온 체육센터(서신동)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직장 내 괴롭힘'과 '이용객 갑질' 등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도내기생 국민체육센터와 라온 체육센터는 최근 개장한 신규 복합체육시설로 운영 초기 인권 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이 진행됐다.

앞서 공단은 지난 18일 덕진수영

장과 완산수영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이 수영장은 전주의 대표적인 공공 수영장으로 연일 무더위로 많은 이용객들이 찾고 있는데 이용객 갑질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이 진행됐다.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함께 인권침해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구체적인 구제 절차와 파장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구대식 이사장은 "지속해서 인권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인권 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올해 상반기 전주한옥마을에 관광객 813만명 다녀가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로 한옥마을 활기 기대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 올해 상반기동안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813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동통신기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전주한옥마을에 총 813만 4718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두배정도 증가한 수치이고 올해는 1500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한옥마을을 국제적 위상에 맞는 관광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옥마을 일원에서 허용 음식 품목 및 건물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 올해 상반기동안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813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지난 5월 4일 현장학습을 나선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는 한옥마을을 경기전의 모습이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전주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으며, 건축물 층수도 태조로·은행로지구에 한해 지상 2층까지, 전 지구에 지하층도 허용된다. 또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에 음식점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단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업종인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

점, 제빵점)과 일부 패스트푸드점(모넛,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이 기존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객에게 보다 다양한 먹거리 제공하고 업종 다양화가 가능해진 만큼 한옥마을이 한층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확대하고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세계문화주간 △전주문화재 야행 △한옥마당에서 즐기는 한옥정 원콘서트 △1588 전주별시 △전통창극 공연 △시립국악단 공연 등 13종류의 다양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 한옥마을을 구성요소 체험할 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져 한옥마을이 활기로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덕진보건의소, 집단감각통합치료교실 참여자 모집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오는 10월부터 지체와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집단 감각통합치료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시보건소 장애인 의료지원팀이 주도하여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사전 모집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은 다양한 감각통합적 놀이 교육을 통해 신체활동 및 조작 활동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증

진을 목표로 운영되며, 참가자 4명이 하나의 그룹이 돼 총 4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주대학교 감각통합프로그램실에서 다양한 장비와 교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집단 감각통합치료교실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발달 지연 아동 및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취학 전 5~7세 아동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아동들은 오는 28일부터 9월 8일 정오까지 2주간 전주시보건소 누리집(health.jonju.gov)에 게재된 모집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연계 학과 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총 8명을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신체 및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보건소
집단감각통합치료교실

전주시보건소 장애인 의료지원팀이 주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 발달장애 아동 (5~7세)

장소: 전주대학교 감각통합프로그램실

기간: 10월 10일 ~ 12월 1일 (매주 금요일)

신청: 전주시보건소 장애인 의료지원팀 (063-250-1111)

문의: 전주시보건소 장애인 의료지원팀 (063-250-1111)

전주시, '을지연습' 성공적으로 마무리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 위해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으로 실시

전주시는 지난 21일부터 4일간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된 '2023년 을지연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훈련에서 첫날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적 공격'에 의해 파괴된 교량 복구'를 주제로 한 전 시현안파제 토의(22일) △국가중요시설인 농촌진흥청에서 드론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실제훈련(23일) 등을 실시했다.

또한 훈련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전 시대비 실효성 검증에 위해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최종강령 보고회로 4일간의 훈련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목표로 진행된 올해 을지연습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으로 실시됐으며, 6년 만에 민방위 공습경보도 발령됐다.

시는 을지연습이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교대시 근무자들에게 통합방정보공문체계에 대해 교육했으며, 메시지 처리를 통해 비상 상황에 대비할 능력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재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훈련"이라며 "최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로 완벽한 대응 연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농협

물 좋고 공기 좋은 우리 고장 전주에서 생산된 대표특산물,
복숭아, 배, 호박, 미나리, 장미

전주농협에서 맛과 신선함을 책임지고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농민이 애국자입니다. 우리 농산물 최고!!

농민과 도시의 상생정신을 지키는 -
전주농업협동조합